

안전을 바탕으로 최고의 IT 기관 실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가 3,6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6%를 넘어섰다고 한다. 3명 중 2명이 이제 휴대전화를 보유한 셈이다. 1996년 CDMA기술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 IT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그 최 일선에 바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다.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R&D 기관으로서 안전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았다.

■ IT 핵심기술의 창조적 개발로 국가와 인류 번영에 기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1976년에 설립된 정보통신 분야 정부출연 국책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 IT산업을 이끄는 '기술 젖줄'의 역할을 해오면서 신기술은 물론 우수 인재를 지속적으로 창출, IT강국

ETRI Electronics and Te
Research Institute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 왔다.

세계 최초로 CDMA기술을 상용화시킨 것을 비롯하여 사용자 및 인간과 공존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 고품질 홈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하는 홈네트워크, 고속의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긴급구조와 교통정보 등 양질의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제공하는 텔레매틱스, 시청자의 선호에 따라 시청 가능한 통합정보방송인 디지털TV·방송 등 최첨단 IT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구단지 최초 자율 안전진단 실시

여타 제조업과는 달리 연구원의 특성상 낮에는 물론이거니와 밤에도 연구가 계속 되어질 수도 있으며 설비 또한 24시간 지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 낮 시간에는 관리자들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적을 수 있으나, 야간에는 졸음과 피곤으로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야간 안전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방재반에서는 연구원내의 모든 건물의 출입 상황을



한 눈에 보며 모니터할 수 있고, 화재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99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최초로 외부 안전전문 기관으로부터 실험실을 비롯한 위험시설에 대하여 자율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통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한 위험을 신속히 발견·개선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전산화를 통한 위험기계 및 위험작업 관리 철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다양한 실험실이 있으며 근무 인원만해도 2,700~2,800명에 달한다. 실험실마다 고유한 연구 분야가 있으며, 그 중에는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위험작업을 할 때는 사전 신고제를 통해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게 하고, 위험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의 감독하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업무는 전산화를 통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이로써 위험작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다.

위험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이나 전기실, 기계실 등은 24시간 안전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든 고압가스나 독성이 강한 가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캐비닛 시설에 넣어 실험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웹을 통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교육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규직원만 약 1,800명에 이르고 이 중 석·박사급 직원이 90%를 넘는 고급 두뇌 집단이다. 연구소의 특성상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2개월에 1회씩 'UCMS'를 통해 웹으로 안전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년 2회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안전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학약품이나 고압가스 등 위험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실험실의 용역업체 직원에 한해서는 매월 1회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연구원들의 화합과 철저한 건강관리로 세계 최고의 연구소 실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축구 동호회를 비롯해 25개의 동호회가 있다. 또한 월 1회 오후 시간에 한하여 'Teamwork Day'를 실시하여 연구원간의 화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매년 종합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 건강관리실 운영, 산업보건의 상담 등 연구원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앞으로 2006년 4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연구실 안전 환경조성에 관한 법'에 따라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을 구축하여 21세기 세계 최고의 IT R&D 기관을 실현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고자 한다. 

< 임재근 기자 >